

원인-이유

문법	기능	동사/형용사	앞뒤 관계
V/A -아서/어서 ¹	원인-이유	동사/형용사	인과-인과
V -아서/어서 ²	순서	동사	순차

예)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.

예)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.

예)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 합니다.

문법	기능	앞뒤 주어
V/A -아서/어서 ¹	원인 이유	앞=뒤 앞 뒤
V -아서/어서 ²	순서	앞=뒤

-아서/어서 /-니까(이유)

개관적 원인 / 주관적 원인

예)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요. 예) 눈이 많이 오니까 길이 미끄러워요.

-아서/어서	과거 시제 X
-니까	과거 시제 O

-아서/어서	명령문 X 청유문 O
-느까	명령문 X

	과거 시제	뒤에 내용
-기 때문에	O	명령문 X
-아서/어서	X	청유문 X
-니까	O	

V/A -아/어여 가지고 = 아/어서

예) 날씨가 더워 가지고 에어컨을 켰어요.

N(으)로 인해서, N(으)로 말미암아

예) 올바른 생활 습관 **으로 말미암아**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.

예) 지구의 온난화 **로 인해서**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.

-V/A (으)므로

-아/어서, -기 때문에, -기에	과거 o, 미래 o	명령/청유문 x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

V/A (으)ㄴ/는 지라

과거/미래 > o 예) 저도 사람 **인지라**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.

V 았/었/였더니

Konuşanın kendi tecrübesini dile getirdiği durumlarda kullanılır. İkinci cümlede gelecek zaman kullanılmaz.

예) 밥을 급하게 먹 **었더니** 소화가 잘 안 돼요.

V/A 더니

İlk cümlede konuşucunun başka birinden duyduğu şeyleri dile getirirken kullanıldığı ifadedir. 2. Ve 3. tekil şahıs kullanılır.

예) 무한 씨가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다니 **더니** 감기에 걸렸나 봐요.

V/A -느라고

İlk cümledeki oluşum ikinci cümledeki olumsuzluğa sebep olur. “감기에 걸리다, 기침이 나다, 넘어지다, 일어나다, 알다, 모르다” gibi fiiller süreklilikleri olmadığı için ikinci cümlede kullanılmaz.

과거	미래	o
명령문	청유문	x

N 덕분에 / V/A L /는 덕분에

Sayesinde anlamında gelir.

예) 선생님 **덕분에** 한국어를 잘 배웠어요.

예) 친구가 맛집을 추천해**준 덕분에**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.

N탓에 / V/A -(으)ㄴ /는 탓에

Her zaman olumsuz bir sonuç barındırır.

예) 어제 잠을 못 **잔 탓에** 망쳤어요.

문법	결과
때문에	긍정
	부정
덕분에	긍정
탓에	부정

예) 더운 날씨 **때문에**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.

예) 더운 날씨 **때문에**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는다.

예) 더운 날씨 **덕분에**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.

예) 더운 날씨 **탓에**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는다.

V/A 기에

-아/어서, -기 때문에, -(으)므로 anlamlarına gelir.

예) 친구가 수업 시간에 **즐거이** 깨워주었다.

예) 우리는 아직 **젊기에** 할 수 있는 일이 많다.

원인 - 이유, -아/어서 / 기에 Karşılaştırma

문법	앞의 주어	뒤에 주어
-기에	제약 없음	1 인칭, 연관주어 O 2,3 인칭 X
-아/어서	제약 없음	제약 없음 O

예) 책이 싸기에 (나는) 한 권 더 샀다.

예) 밥을 많이 먹었기에 (나의 배가) 터질 것 같아요.

예) 책이 싸기엔 친구가 한 권 더 샀어요. X

예) 책이 싸서 친구가 한 권 더 샀어요.

예) 책이 싸서 (나는) 한 권 더 샀어요.

Kaynak: 김진호, 이태환, 김선희, 이수연.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.

